

# 붓들 사랑방 이야기

우리동네  
문화공간  
채널

붓들, 콘크리트 벽에서 피어난 꽃 | 이원혜 지음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삼평동 이야기북1  
**'벗들 사랑방 이야기'**

발행인	안인기
편집인	하동근
기획총괄	이상훈
기획진행	박동기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a href="http://www.sncf.or.kr">www.sncf.or.kr</a> / <a href="http://www.snart.or.kr">www.snart.or.kr</a>
발행일	2012. 02.
글	이원혜
디자인	정미순
인쇄	필그래픽스

붓들 사랑방  
이야기





# 붓들 사랑방 이야기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차별난 이야기

붓들, 콘크리트 벽에서 피어난 꽃 | 이원혜 지음





## 삼평동 주민 A씨의 하루

A씨는 평범하고 성실한 40대 가장이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 그리고 전업주부 아내, 이렇게 4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직업은 대치동에 있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개봉동에 살다가 3년 전에 삼평동으로 이사를 왔다.

꿈에도 그리던 판교. 결혼하면서 제일 처음 만든 통장이 청약저축 통장이었다. 하지만 통장만 있으면 될 하나. 결혼하고 10년이 넘었지만, 매년 오르는 전세금 외에는 별반 모아 놓은 돈도 없었다. A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회사 일 외에 간간이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거리가 있으면 알바도 마다하지 않는다. 술은 한 달에 고작 두 번 정도. 그것도 회식이나 있을 경우지, 그 외에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하는 편이다. 사치스럽고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너무 돈을 안 쓴다고 불만이 많다. 꼭 써야 할 때마저도 너무 지갑을 푹푹 잠가 놓는다는 것이다. A씨는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고 꿈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볼멘소리를 해도 한 귀로 흘려버린다.

‘흥, 매년 전세금 올려주고, 그러다 이삿짐 싸는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그제야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그러면서 혹여 쓸데없이 새는 돈이 있을까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럴까.

## 재테크

우선 A씨의 월급 인상에 비해서 물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보폭도 넓게 올라버렸다. 그가 아무리 돈을 아낀다고 해도 굶을수는 없는 일, 벗고 살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기본 생필품 가격이 뛰기 시작하니 서민들로서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연봉이 팍팍 올라도 힘든 판에 회사가 한동안 어려워지면서 월급을 서너달 못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뿐인가. 전세금을 어마무지하게 올려 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못 마시는 소주를 한 병이나 별걱별걱 들이 마시고 결국은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돈을 좀 모으는가 싶으면 부모님이 입원을 하고, 아이들이 번갈아 아팠다.

이러니 청약통장이 있어도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했었다. 언젠가는 ,기필코...늘 그런 생각을 하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아, 판교...로또.... 이 단어는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유혹적인 멘트였다.

A씨 부부는 밤을 꼬박 새우며 의논을 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했다. 인생 복불복이다!!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당첨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단 한번 넣어 보거나 하자. 그래서 만약 된다면, 그때부터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악착같이 대출금을 넣어서, 판교 아파트가 진정한 로또가 될 때까지 키우자!

이럴수가 ! 한번 넣고 떨어지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들은 두 세 번 떨어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그 판교에 A씨는 한 번에 딱 당첨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A씨는 삼평동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다. 그 뒤로 3년.

A씨는 하우스 푸어 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A씨는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차를 팔고, 휴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탄천으로 놀러간다. 물론 도시락을 싸들고, 외식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아내는 공부방을 시작했다.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 주거환경

A씨는 개봉동 토박이다. 부모님은 아직도 그 곳에 살고 계신다. 개봉동이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는 그럭저럭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총각 시절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재래시장이 많고 전철역도 가까워서 서민들이 살기에는 이만한 동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당이나 일산처럼 잘 가꿔진 신도시에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A씨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타입이다. 지금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만 앓다면 굳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욕심내서 속을 끓이지는 않는다.

바로 옆집이 슈퍼고, 길 건너가 큰 마트고, 모퉁이만 돌아가면 재래시장이 있는 동네에 살다가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삼평동이 처음에는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괜찮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까운 야탑이나 분당으로 나가니까 크게 아쉬운 일은 없다.

얼핏 보면 삭막한 아파트만 있는 것 같지만, 삼평동은 의외로 전원도시에 가깝다는 것도 점점 마음에 들었다.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 뒤로는 아직 택지개발이 덜 되어서 낮은 야산과 논밭이 남아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논길을 거니는 재미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것이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공원도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탄천이 가까워서 운동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교통도 편리하다. 개봉동에 살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강남까지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었는데, 삼평동으로 이사 오면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니 출퇴근이 훨씬 수월하다. 사통팔달로 뚫려있는 길에 버스노선도 잘 되어 있어서 그를 아주 흡족하게 한다.

삼평동은 아직 공사 중이다. 여기저기 포크레인 소리가 하루종일 시끄럽게 울려 퍼진다. 아마 내일은 더 변하고 그 다음날은 더 변하겠지. 그래서 A씨는 이 동네가 무척 흥미롭다.

## 문화

삼평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A씨 가족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우선 가장인 A씨의 귀가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진 이유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달려오는 것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가족 간의 화합은 더욱 좋아졌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근처로 산책도 자주 나간다. 걷고 싶은 길이 많아서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이들이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를 음악 삼아 걷고 있으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버리는 것 같았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대출금 이자도, 잔뜩 꼬여 버린 회사일도, 부모님의 건강 걱정도 잠깐 잊어버리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그는 참 좋기만하다. 비록 짧은 휴식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다.

A씨 아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자아실현이 어쩌구 하면서 매일 뭔가 하겠다고 말만 하더니 드디어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가 집안일에만 갇혀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아내는 '자아실현'을 습관처럼 입에만 달고 살았지,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다.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집안 일을 톡 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 같기도 하다고 A씨는 늘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맨날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A씨가 언젠가 무심코 한 마디를 던졌다가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진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아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모양이다. 도서관 얘기를 할 때면 아내는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아내를 보는 A씨의 마음도 흐뭇하지만, 다만 도서관 때문에 공부방 운영에 소홀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은 마음에 품고 있다.

A씨는 삼평동에서 가능하다면 아주 오래 살고 싶다.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모를 일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어쩌면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삼평동을 떠날수도 있겠지. 낙천적인 성격의 A씨는 ‘로또’라고 불리는 (비록 진짜 로또인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지만) 판교에 단번에 당첨 되었던 자신의 운을 굳게 믿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삼평동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동네다. 아내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지역 일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삼평동이 대충 건물만 똑딱 지어놓는 마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오늘도 A씨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집을 나선다. 오늘을 열심히 살자! 그래야 내일이 온다. A씨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하늘을 보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 목 차

**07** 프롤로그/ 삼평동 주민 A씨의 하루

**15** 봇들 삼거리에서 삼평동까지

**21** 〈애들아, 노을자!〉

봇들문화사랑방 운영위원장 이은정 씨

**29** 〈우리들의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이지더원 작은 도서관 관장 공옥례 씨

- 37** <고향을 닮은 마을>  
아파트 입주자회 대표 **양정훈** 씨
- 49** <아파트 숲에도 꽃은 핀다>  
홍성자 통장
- 61** <정들면 고향이지>  
지강진 통장
- 71** <우리가 만드는 마을 이야기>  
주민자치 위원회 **조희태** 위원장



붓들 삼거리에서 **삼평동**까지







## 붓들 삼거리에서 삼평동까지



삼평동(三坪洞)의 명칭은 삼거리의 '삼(三)'자와 붓들[북평(湑坪,福坪)]의 '평(坪)'자를 취하여 지은 이름이다. 삼거리는 서울, 수원, 경안으로 가는 3각 교차점에 위치한 마을로서, 주막거리로 불리던 곳이다. 붓들은 북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역이 개울(금토천)을 막아 농사에 쓰기 위한 보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원래 이 지역은 삼거리(三巨里, 三街里)를 중심으로 독점, 미듬골, 붓들, 성내미[성남(城南)]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로부터 서울, 수원, 경안으로 가는 교차점이어서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삼거리, 보평리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낙생면 삼평리가 되었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삼평동으로 성남시에 편입되었으며, 1975년 3월 성남시 낙생출장소가 설치되면서 판교동의 관할이 되었다. 1989년 5월 성남시 구제(區制)의 실시에 따라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출장소가 분당구로 승격되면서 분당구 관할이 되었다. 판교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2008년 12월 판교동에서 분동하여 행정동이 되었다.

삼평동은 판교 신도시의 북동부에 해당하며, 아파트 단지인 봇들마을과 첨단 산업단지 테크노밸리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3.33km<sup>2</sup>의 면적에, 7,775세대, 24,49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 판교 119안전센터가 있고, 교육 기관으로 성남송현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 삼평중학교, 삼평고등학교가 있다.

한편 분당구 정자동과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5km의 복선 전철인 신분당선 개통으로 분당에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판교역 주변이 판교 중심 상업용지로 개발되어 대형 유통시설과 환승 주차장 등이 건립 예정이어서 판교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삼평동)

## 봇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마을 이름.

마을의 서남쪽 운중천에 예전에는 화랑보,재찬보 등이 축조되어 있어서 '보(洲)'와 '들판'의 뜻을 따서 보평 또는 봇들이라 부른다.

판교동의 너더리마을 서쪽에 위치한다. 마을이 들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보들은 서쪽지역을 웃보들[웃말], 동쪽지역을 아랫보들[아랫말]이라 하여, 일제강점기 때에는 '북평'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 전에는 마을 뒷산의 큰 참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나무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 <보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관할의 옛 지명.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관할의 자연마을로 신라시대 진흥왕 때에 화랑도들이 막았다는 화랑보에서 물을 끌어들인 수리안전답들이 마을 앞에 있었다. 예전에는 서울과 수원을 경유하여 영호남으로 가는 길과 광주 방면으로 하여 강원이나 경북 방면으로 가는 세 갈래 길인 삼거리 동쪽에 위치하였고, 평산신씨(平山申氏)와 연일정씨(延日鄭氏), 청풍김씨(淸風金氏) 등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평은 마을의 운증천에 화랑보·재찬보 등이 있어 보(湫)와 들판의 뜻을 따서 보평 또는 봇들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광주군 낙생면 보평리(湫坪里)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삼거리(三巨里)와 보평리를 병합할 때 한 글자씩 취해 삼평리로 바뀌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승격과 동시에 삼평동으로 승격하였고, 1991년 9월 분당구 관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동쪽 지역으로 판교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옛 지명을 살려 공동주택 단지 봇들마을을 조성하였다. 삼평동을 가로지르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쪽으로는 대왕판교로, 동쪽으로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서현로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탄천에 합류되는 금토천이 흐르고 있다.



# 애들아, 노을자!

붓들문화사랑방 운영위원장 이은정 씨





# 애들아, 노를자!

봇들문화사랑방 운영위원장 이은정 씨



까르륵 까르륵

뭐라 그리 좋은 지. 평소 새침하기 이를 데 없는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송현공원에 낭랑하게 울려 퍼진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은정 씨의 입가에도 함박웃음이 걸린다. 기분 좋은 바람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하늘은 유난히 높고 청명한 가을날이다.

봇들문화사랑방 <에코프로젝트>수업이 송현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삼평동 주민센터에서 봇들문화사랑방 강좌 모집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마을문화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더라구요. 흥미가 생겼죠. 마침 나도 뭔가를 배워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줌마세시봉>이라는 기타 수업이 있었구요, 아이를 위해서는 <에코 프로젝트>가 있어서 딱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뭔가 막 기대가 되고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일까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 우리는 줌마 세시봉이에요!

“언니들, 다음 주에는 이 부분까지 연습 꼭 해오셔야 되요. 안 해오시면 끝나고 간식 사기”

“아이고, 힘들어. 연습을 죽도록 해도 이 손이 말을 안 듣는 걸 어찌하누, 자기들도 내 나이 돼 봐. 이 머리하고 마음하고 손하고 다 따로 놀지.”

“언니는 잘 하시면서 괜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에 놀러 다니느라고 연습 안했으면서 뭘...”

“어, 봤어? 언제 봤지?”

“아이고 언니야, 그걸 봐야 아나. 척하면 착이지.”

“에이, 난 또 아예 자리를 깔아라, 깔아. 푸하하하”

줌마세시봉 회장님이 애교를 한껏 섞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통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터져 버렸다. 줌마 세시봉 연습은 늘 이렇게 유쾌하다. 음악과 함께하는 진지한 시간도 좋지만, 주거니 받거니 웃음보가 터지는 농담부터 속 깊은 고민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오래된 친구 같은 관계가 늘 은정 씨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리고 보니 실력들도 정말 많이 늘었다. 작년 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것은 20대 때였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는 뭔가를 정기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하물며 기타라니. 악기점에 가서 기타를 고르면서 은정 씨는 다시금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듯 설레는 기분을 맛보았다.

은정 씨는 처음 기타 줄을 튕기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있잖아요, 오랜 꿈을 이룬 듯한 느낌...아니면 첫 사랑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런 기분이랄까. 약간 어색하면서도 떨리는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세시봉 음악이 그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저두 그 노래들 좋아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그 음악들을 통기타로 연주할 수 있다고 상상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줌마세시봉 등록하면서 아마 다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수업료도 무료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죠. 동네가 아니라면 또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음악보다도 사람들이 더 좋아지더라구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걸까. 삼평동이라는 동네에 같이 살기 때문에, 아님 음악과 통기타라는 매개가 있어서, 아님 거두절미하고 원래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일까.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줌마세시봉 회원들 사이를 돈독하게 만든 것이겠지.

##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에코 프로젝트

“자, 이제부터 우리는 패션 디자이너고 모델이에요. 이 공원 안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한껏 꾸며보세요. 나뭇잎, 꽃잎, 작은 풀잎, 돌멩이, 나뭇가지, 굴러다니는 쓰레기, 지나가는 바람.....무엇이든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옷 만드는 걸 도와주시기는 하되, 절대로 간섭하거나 지시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꾸미는데 꼭 필요한 도움만 주시면 되요. 아시겠죠?”

에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명 ‘깨끼’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엄하게 얘기한다. 에코 프로젝트는 매주 수요일마다 송현 공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다. 2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고, 뒹굴면서 논다. 오감을 이용해서 한껏 자연을 호흡하는 수업이다.

은정 씨는 큰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둘째는 터울이 많이 나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원래는 하나만 낳으려고 했는데, 막상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 뒤늦게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 은정 씨는 그래서 딸 아이를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오빠와 나이차이가 많이 져서 그런지 딸 아이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낮을 많이 가리고 활발하게 얘기하면서 놀기 보다는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던 딸 아이가 에코프로젝트 수업을 들으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은정 씨는 너무나 놀라웠다.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열두번도 더 바뀌기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절대 앞에 나서는 성격

이 아녜데 께끼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저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을 번쩍 드는 걸 보면서 내 딸이 정말 맞나 싶더라구요. 저야 대만족이죠.”

에코 프로젝트에는 엄마들도 꼭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고 별달리 하는 일은 없다. 그냥 객석의 관중들처럼 선생님과 아이들이 노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는 게 엄마들의 역할이다. 내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적절한 교육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엄마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라는 의미였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은정 씨는 물론 다른 엄마들도 아이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에코 프로젝트의 기본 정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뭇잎을 따서 손수건에 염색할 때는 은정 씨도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해하면서 ‘저게 과연 될까’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어라, 정말 되네’

보물찾기나 나뭇잎 찾기 등을 할 때는 오히려 엄마들이 더 신이 나서 뛰어 다니기도 했다.

“수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마들이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각성을 했다고 할 정도예요.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 강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 학원보다는 체험으로 배우기

에코프로젝트 수업을 들은 엄마와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 수요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고, 공부와 상관없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엄마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모임의 이름을 정했다. <애들아!놀러가자>를 줄여서 <애놀>이라고 지었다.

은정 씨는 큰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밖으로 많이 데리고 다녔다. 미술관, 박물관은 물론이고 주말이

면 가까운 산이라도 꼭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 학교나 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몸으로 배우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알아?”

고등학교에 올라아서도 학원을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한마디했다. 은정 씨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학원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그래도 아이들은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니까, 남들한테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학원에 앉아 있다. 아까운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 가엾다고 은정씨는 생각한다.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학원에 안 가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너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스스로 감내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학원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쪽을 택하더라구요.”

아이들은 청소년기까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책을 덮고 마음껏 뛰어 다니면서 놀아야 된다는 은정 씨 생각에 맞장구를 치고, 한 술 더 뜨는 아들을 여기, 삼평동에 와서 만났다.

삼평동 사람들은 ‘판교 드림’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은정 씨도 평촌에서 이사왔다. 원래는 안양 토박이다. 안양에서 태어나서 줄곧 그 곳에서 살았고, 결혼해서도

자연스럽게 안양에 자리를 잡았다. 평촌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곳 아파트로 입주해서 삼평동에 오기 전까지 살았다.

안양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다. 눈 감고도 길을 찾으려면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곳이다. 남편이 판교에 추첨을 넣어 보겠다고 해서 ‘안 될텐데...’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 버렸다.

“처음에 와서는 다시 안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영 적응이 안 될 거 같았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뭘 할 것도 없고....”

딸 한테 적절한 체형 교육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마침 멀리도 아닌, 동네에서 에코 프로젝트 수업을 찾은 것이다.

## 삼평동에 청소년 센터를

에코프로젝트는 ‘애놀’로 발전했고, 은정씨가 하고 있는 줌마세시봉은 계속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기로 했다. 누가 시킨 것 도 아니고 모임에 모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줌마세시봉과 애놀을 합쳐서 <꽃들문화사랑방>을 정식 동아리로 등록했다. 회의를 거쳐서 각각 회장을 뽑고, 전체 일정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은정 씨는 얼떨결에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을 휘젓던 은정 씨가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모자란 힘이나마 이 작은 싹을 키우는데 한 몫을 보태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자치 모임은 사실 초기에는 그런 분들의 힘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데 열심히 배우는 것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더욱 우리 동아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려구요.”

꽃들문화사랑방은 지자체에서 명석을 깔아 주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자생적인 힘으로 재생산을 시작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은정 씨를 비롯한 꽃들문화사랑방 회원들의 꿈은 삼평동이 다양한 문화와 함께 발전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삼평동은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예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반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 마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문화 활동을 주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참 필요해요.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은 건 우리 엄마들의 바람인데,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쉬고 뒹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움직이다 보면 마을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은정 씨는 이제는 안양보다도 삼평동을 더 사랑한다. 은정 씨가 삼평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주는 삶의 활력, 그리고 앞으로 은정 씨가 해야 할 일들이 안겨주는 생동감이 더 없이 좋은 것이다.

# 우리들의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이지더원 작은 도서관 관장 공옥례 씨





# 우리들의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이지더원 작은 도서관 관장 공옥례 씨



처음 삼평동에 이사 왔을 때, 옥례 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기뻐다. 관리 사무소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약 25평 규모라면 그리 작은 편도 아니었다. 그 공간에 올망졸망 있을 것은 다 갖추고 있었다. 책꽂이, 앉은뱅이 책상, 도서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옥례 씨가 좋아하는 책, 책들...

“노원구에 살다가 판교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보니까 입주자 협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 더구나 신도시에 입주한 것은 처음이라, 새 아파트는 어디나 주민협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참 특이하게 활발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3,40대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입주자 협의회 카페에서 도서관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기에, 도서관은 옥례 씨 한테는 학교나 마찬가지였다. 가슴이 벅찼다. 비록 큰 도서관들처럼 책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도서관은 작은 대로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 고창에서 보낸 어린시절

옥례 씨는 1남 4녀의 맏이로 태어났다. 고향은 전북 고창이다. 살림말천이라는 만팔답게 옥례 씨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살림꾼이었다.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 대신에 집안일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거두는 것은 온전히 옥례 씨 몫이었다. '남다른 책임감'은 그때부터 길러졌지만, 반면에 놀 줄도 모르고 우직하고 안으로 담아두는 답답한 성격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 것을 막 주장하고 가지는 것보다는 동생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옥례 씨는 그리 싫지가 않았다. 학교만 끝나면 부지런하게 집에 돌아와야 하는 것도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몰려다니면서 노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

옥례 씨는 시골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눈이 닿는 곳이면 아름다운 산과 하천이 있고, 길가에 비죽 솟은 작은 들풀마저 아름다운 시골길은 지금도 늘 그림기만 하다.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나는 시골에서 자란 덕분에 굉장히 풍요로운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도시에서 너무 삭막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그런 환경 밖에 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어요. 시간만 되면 여행도 다니고, 외가에도 자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데 애들이 커갈 수록 힘들더라구요. 처음 삼평동 왔을 때, 조금만 걸어 나가면 아직도 시골 풍경을 간직하고 있어서 참 좋았어요.”

중학교까지 집에서 다니고 그 뒤에는 대학까지 전주에서 살았다.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직장에 다녔는데, 그 때가 이제껏 살면서 가장 힘들던 시기였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러 학원에 다녔다. 말이 주경야독이지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니까 식욕을 잃고 비쩍 말라갔다. 건강은 극도로 나빠지는데 시험은 자꾸 떨어졌다.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탓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또 괴로워했다. 결국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서울 생활을 접고 고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건강을 되찾았다.



교직에 대한 꿈을 접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관공서에서 근무했다.

“옥례 야, 좋은 남자가 있는데 소개팅 해볼래?”

친구 소개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났다. 첫 눈에 반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좋은 느낌을 간직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옥례 씨는 남편의 밝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내성적인 자신에 비해 서 활달하고 재미있고 늘 유쾌하게 웃는 남편을 만나면 기분이 덩달아서 밝아지는 것 같았다.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린 곳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였다. 둘째까지 낳아서 기를 동안은 육아에만 전념을 했지만, 옥례 씨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해소되지 않은 욕구들이 끓어 오르고 있었다.

“좀 답답했어요.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가꾸고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요. 늘 마음에 허기가 졌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이나 옆에 끼고서는 뭘 해야할 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하길 바라고 있는 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 삶을 밝히는 공부

구민회관에서 주부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글쓰기라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등록을 했다. 처음에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옥례 씨는 그 수업에 점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아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너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원래도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독서를 시작했어요. 책 읽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하기도 싫을 정도로 푹 빠져 있었어요.”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읽고,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글도 쓰는 모임이었다. 고맙게도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다.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책 읽고 밤새 발제 원고를 쓰는데, 제가 컴맹이었거든요. 컴퓨터를 그때 배웠어요. 우리 모임은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발제를 하면서, 관련된 역사, 문화 등을 함께 조사하는데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하는 것도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서 작업도 서툴러서 시간도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그러면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그랬죠. 아마 고시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단번에 붙었을 걸요.”

그 당시에 했던 공부는 옥레 씨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꼭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부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격증을 따거나 돈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을 채워주는 공부는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가 없어도 그대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자 일거리는 저절로 생겼다. 모임을 이끌던 글쓰기 선생님이 역삼동 청소년 수련원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다. 선생님은 자신의 후임으로 옥레 씨를 추천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글쓰기 수업〉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다.

## 작은 도서관의 미덕

옥레 씨가 작은 도서관 관장을 맡은 것은 2010년 말이었다. 사실 작은 도서관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직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뜻 맡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작은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때문이기도 하다.

“기왕에 주어진 공간인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

남시 정보문화센터에서 주최한 <도서관 학교>에 다녔던 것도 그런 고민을 구체화 시키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도서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요.”

현재 성남에는 5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들이 모인 협의회에도 2010년에 가입을 했다.

옥레 씨는 이 도서관을 입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운영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했던 것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인형극이나 마술을 경로당을 빌려서 공연했다. 방학에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특강을 하고, 토요일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은 덕에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은 아무리 활동이 많아도 동네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또한 그게 작은 도서관의 미덕인 것 같아요. 더 광범위한 활동들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면 되고, 우리 작은 도서관들은 소박하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되는 거죠. 동네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하나씩 다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마을 만들기도 열풍이고 문화 사업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면 공간도 생기고, 콘텐츠도 생기는 일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문화로 마을 만들거죠.”

옥레 씨는 작은 도서관이 책들의 무덤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책들을 그저 쌓아 두기만 할 수 있다. 책장에 쌓아두든 창고에 쌓아두든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새 책이 들어오면, 오래 된 책들은 챙겨 두었다가 더 필요한 곳에 보내준다. 책이 늘어나면서 책장을 더 큰 것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도, 예전 책장은 근처 학교에 기부를 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삼평동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도 하고, 도서관 관장도 맡고 있으니까 더 애착이 가는 동네가 되었어요. 아직도 여기저기 공사 중이고 삭막한 마을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마음은 전혀 삭막하지 않아요.”

이 작은 도서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견학을 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그럴 때면 옥레 씨

는 무슨 얘기를 해주어야 할 지 난감하다.

“그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런 요구는 다 다를 테니까 꼭 우리 경험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뭐든지 하고 동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작은 도서관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고향을 닮은 마을

아파트 입주자회 대표 양정훈 씨





# 고향을 닮은 마을

아파트 입주자회 대표 양정훈 씨



하늘이 맑은 날이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어느 새 성큼 다가오고 있는 듯, 살랑살랑 불어와 땀을 스치는 바람에 봄기운이 흠씬 느껴진다.

정훈씨는 모처럼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내어 남한산성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얼마만인가. 먼 곳도 아니고 고작 십 여분 버스를 타는 가까운 나들이길이지만 겨울 동안은 추위니 눈이니 이런저런 핑계로 쉽게 발걸음이 향하지 않았다.

나이 탓인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먼 곳은 아니더라도 근교에 겨울 산행도 곧잘 가곤했는데. 어느새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를 생각하면 정훈 씨는 가끔은 쓸쓸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은가, 스스로 위로를 해본다.

“야, 날씨 죽이지 않냐”

“산행은 무슨... 그냥 산성 밑에서 막걸리나 마시지.”

“야, 이녀석아! 그래도 체면이 있지 좀 걷는 시늉이라도 해야 막걸리도 맛나는게지...”

“그런가...허허허.그렇지...”

정훈 씨는 앞머리가 희끗해진 초로의 사내들이 아이들처럼 주거니 받거니 투닥거리는 모습들이 정겨워 슬며시 웃음이 난다. 삼평동으로 이사 와서 만났지만 오래 사귀고 친구들 못지않게 정이 깊은 친구들이다. 하긴 고향을 떠난 이후에 고된 서울살이에 휘둘리느라 어린 시절 친구들과하고는 어느새 고향과 서울의 거리보다도 더 멀어졌다.

이웃사촌. 나이 들어서 같은 동네에서 오순도순 지내는 이웃친구들이 있어서 정훈 씨는 행복하다.

삼평동에 이사 온 후부터는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찾아가고 있다. 정훈씨는 이곳에 와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낯선 주거 공간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방안에만 누워있어도 이웃들 목소리가 들리고, 동네 소식이 훤히 전해지는 고향마을이나,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북작거리고 모이는 예전 동네에 비해서 아파트는 영 삭막하게 느껴지지만 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서있지 주변에 볼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동네가 신산스럽기만 했다. 하다못해 시장을 보러 가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전세를 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정훈 씨는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다.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여기가 내 집이다. 처음 서울 올라와서 그 삭막한 시절도 견뎠는데 이 정도야...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숨 쉬기 편한 공기, 잘 가꾸어진 공원은 아니지만 아파트 숲을 조금만 벗어나면 탁 트인 벌판이 있는 곳. 오랜 서울살이에 있고 지내던 어린 시절 고향 풍경이 마음 한편에서 슬며시 떠올랐다.

## 28살, 젊은 이장

“서울로 가자”

어느 날, 불현듯 정훈 씨는 고향을 떠났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였



다. 고향에 있어도 밥 굶을 만큼 빈한한 살림은 아니었다. 오히려 단위농협 이사를 하면서 동네 유지 소리를 듣는 처지였다.

“아니, 이 사람아, 이때껏 땅만 파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가서 뭘 해먹겠다는 거여.”

“어허...참 정신이 나간거 아녀.”

집안 어른들이며, 친구들이며 할 것 없이 정훈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1991년, 정훈 씨는 어머니와 아내, 두 아이를 데리고, 올망졸망한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정훈 씨의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이다. 정훈씨의 집은 남원 시내에서 약 3킬로 떨어진 주생면에 있는 양씨 집성촌으로,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대부터 이곳에서 대대로 일가를 이루며 살아왔다.

주생면은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너른 평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무르익을 무렵이면 마을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척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훈 씨 부모님들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잠시도 허리를 펴고 쉴 틈이 없었다.

그래도 그 때는 좋은 시절이었다. 정훈 씨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넓은 들판에는 사람도, 벼도, 보리도, 밀도, 바람도, 웃음소리도 무엇이든 풍성하게 흘러 넘쳤다. 허리 펴고 틈 없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땅을 일구는 즐거움을 얘기하던 시절이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우리 아버지는 농사도 좀 많이 지었고, 단위 농협 이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배를 굶으면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즐겁기만 했지요. 그때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땅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의 현실이야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농사 지어서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저 조금 먹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대우를 받던 시절이었지. 땅이, 농부가 나라의 근간이라고 떠받들어 주기도 했으니까....”

가난해도 마음만은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던 어린 시절이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정훈 씨의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푸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황금빛 들판에서 하루종일 뛰어 다니면서 놀던 기억뿐이다.

동네 사람들은 거의 멀거나 가까울 뿐 일가친척들이었다. 놀다 지치면 아무 집이나 불쑥 들어가서 ‘아제요, 뭐 먹을 거 없소 잉?’ 하면, 허물 없이 반기며 ‘옥수수줄까, 고구마 줄까’ 하던 동네였다.

어차피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부가 될 것이었다. 다른 꿈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정훈 씨는 자신이 농부가 되는 것을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 일도 열심히 거들었다. 그래서 28살에 마을 이장이 되었다.

아내는 멀지 않은 순창에 살던 처녀였다. 집안 어른이 소개를 해서 선을 봤다. 집안 끼리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터라, 맞선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정훈 씨는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다. 약속한 다방에 들어섰을 때, 창가에 앉아있다가 수줍게 볼을 붉히고 일어서던 곱고 순한 외모를 지닌 처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콩닥거렸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처음 만난 지 두달 만에 식을 올렸다.

처가가 있는 순창에서 전통혼례로 올렸다. 순창이 남원에서 지리상으로는 그리 먼 곳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처가로 갔다. 따로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혼례를 치르고 처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본가로 와서 다시 잔치를 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아내는 내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현모양처였어요. 그때는 농촌총각이라고 결혼하기가 힘들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농촌에서는 결혼이 더 빨랐지. 성인이 되면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그마나 좀 늦은 편이라고나 할까요. 첫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고, 아이들 커가는 것 보는 게 사는 낙이었지. 아내가 아이들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지 어느 날 그러더라구.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서울로 가는 게 어떠냐구 말이에요. 근데 나도 마침 그때 농사일이 힘에 부치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 농촌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니까, 늘 하던 일인데도 힘이 더들더라구. 지금은 그마나 젊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좀 암담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구. 아, 서울로 가자. 인생 뭐 있나.

저질러 보자. 그렇게 갑자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 고향을 떠나다

고향을 떠나기 전전해 쫘미였을 것이다. 단위농협에서 농가수리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고쳤다. 5년 거취 15년 상환으로 160만원을 받아서 오래 된 집을 말끔하게 수리했다.

정훈 씨는 이렇게 집을 고칠 때까지만 해도 천년만년 그 집에서 살 줄 알았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객지로 떠나보내고,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출가를 시키고, 백발성성한 노부부가 되어 손자들을 맞이할 줄 알았다.

정훈 씨는 마당에서 뛰어 놀 손자들을 떠올리며 넓은 마당을 만들었다. 낮은 담장 옆에는 빙 둘러서 꽃밭을 만들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개나리, 진달래, 작약, 수국, 봉숭아, 칸느, 해바라기 등등 온갖 꽃이 번갈아 피어났다. 지붕에 매끈한 기와를 얹은 집은 한 백년쯤 지나도 까딱없을 만큼 튼튼하게 지었다.

오늘 여길 떠나는데 천년만년 여기서 살 줄 알고 이 집을 정성스럽게 지었으니...인간이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로구나...정훈 씨는 그런 생각을 했다.

친구한테 집과 땅을 맡기고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문을 나설 때, 정훈 씨는 식구들 몰래 눈물을 흘려냈다. 젖은 눈을 들키지 않으려고 괜히 먼 산을 보면서 헛기침을 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서울로 갔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디 가든 먹고야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 나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네 식구 운명이 온전하게 내 손에 달려 있는건데...그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무던히 애를 썼지.

고향을 떠나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 땅도 집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집은 친구에게 빌려주고, 땅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임대를 했다.

정훈 씨는 비록 고향을 떠나지만, 텃줄을 묻은 이 자리를 영영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비밀 언덕이 없다면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팔고 목돈을 쥐고 올라간다면 당분간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고향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땅을 팔아서 쥔 돈은 금새 없어져 버린 다는 걸 정훈 씨는 알고 있었다.

1991년 여름, 정훈 씨는 그동안 모은 돈과 자투리땅만 처분한 돈 5천만원을 들고 서울로 왔다.

## 구로 1공단 슈퍼 아저씨

정훈 씨가 서울에서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구로 1공단이었다. 공단 큰길가에 작은 슈퍼를 열었다. 구로공단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일찌감치 돈 벌러 서울로 간 친구들은 거의 구로공단에서 일했다. 시골 사람들에게 구로공단은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었다. 농사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험이나 자격증도 없는 정훈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슈퍼가 최선이었다.

달랑 5천만 원으로는 살림집을 따로 얻을 형편이 안 되었다. 작은 방 두 개가 딸린 가게를 얻었다. 마당 넓은 집에 살던 가족들은 줄지에 단칸방 신세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방 하나는 어머니를 드리고, 나머지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크게 내색 안 하고 꼭 참아준 게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워요. 즈이들이 보기에 서울에 와서 슈퍼 한다고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 부모를 보니까 차마 투정을 부리지는 못하겠나 보더라구요.”

각오는 하고 올라왔지만, 서울살이는 고단하고 또 고단했다. 익숙하지 않은 장사를 하려니 행여 계산이 틀릴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한시도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 교대해 줄 사람이 없으면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닫았다. 쉬는 날 하루 없이 매일 슈퍼 문을 열었다. 감기에 걸려도 누워서 쉴 수가 없었다.

구로 공단에서 살던 그 시절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내와 교대를

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고 등을 대고 누우면 악몽을 꾸곤 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이대로 실패한 채 내려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생각만 해도 창피해서요....”

세월이 약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향으로만 달려가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슈퍼는 그럭저럭 유지되었지만, 고생하는 만큼 수익이 오르지 않는 않았다. 당시에 구로공단은 점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었다. 공단을 떠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점점 줄어 들었다.

정훈 씨는 비록 농사밖에는 아는 게 없었지만,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쉽지 않지만, 그때 정훈 씨는 구로공단에 오래 있어봤자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2년 정도 하면서 장사에 자신이 붙자, 정훈 씨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 슈퍼를 아내한테 맡겨 두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서울 와서 2년 동안 거의 구로동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니, 처음 상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서울은 온통 낯설기만 했다. 한 달 동안은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고 돌아다닌 결과 정훈 씨는 신림동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에 올라 온 지 2년 만에 다시 이삿짐을 싣다. 그래도 그동안 조금 모은 돈이 있어서 신림동 고시촌 한복판에 큰 가게를 얻어서 다시 슈퍼를 열었다.

## 슈퍼에서 고시원으로

신림동에 문을 연 슈퍼는 장사가 무척 잘 되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데도 장사가 잘 되니까 정훈 씨는 전혀 힘든 줄을 몰랐다. 이번에는 상가 주택 2층에 살림집을 따로 얻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게 쉽지 않

은데...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서울 지리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고시촌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버스를 기다리다보니까 서울대라고 써있기에 무작정 올라탔지. 내리고 보니까 거기까 고시촌이라는 거예요. 하루종일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부동산에 물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이 슬슬 오더라구요. 아, 여기구나. 신림동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십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구로동에서 2년, 신림동에서 10년. 도합 12년을 슈퍼를 했다.

정훈 씨 가족이 서울에서 자리잡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고마운 일이지만, 나이들수록 힘에 부치는 일이기도 했다. 슈퍼가 한참 잘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정훈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마침 매물로 나온 고시원 건물을 구입했다. 고시원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슈퍼에 비하면 거의 신경 쓸 일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림동 고시촌은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고시원에서 잘 되어서 나간 학생들도 무척 많았지. 나중에 잊지않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럴 땐 참 좋지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동네가 품위가 있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았어요. 고시원을 하면서 슬슬 등산도 다니게 되고 지역 모임에도 좀 나가게 되고....고생한 아내도 좀 쉬게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지요.”

서울살이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찾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온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 새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자기 동지를 찾아갈 나이가 되었다.

두 아이는 신림동에 살 때 모두 결혼을 시켰다. 요즘은 결혼 아난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도 많다고 하는데, 정훈 씨는 이만하면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한다. 크게 속 썩인 일 없이 학교를 다 마쳤고, 늦지 않게 제 짝을 찾아서 갔으니 더 바랄게 없었다.

## 로또보다 좋은, 삼평동

판교 개발이 시작되면서 각 언론매체마다 들썩거렸다. 판교에 아파트 당첨이 되면 로또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돌았다. 정훈 씨가 삼평동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때 판교는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다 넣어 본다는 곳이었다. 정훈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지만, 꼭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 한번에 당첨이 되었다.

“그때 신림동에서 술 참 많이 샀어요. 로또 맞았으니까 술 사라고 난리들이었지. 주위에 몇 번이나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크게 미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당첨되었다니까 좋더라고요.”

마냥 식막할 줄만 알았던 아파트 생활이었다. 그런데 단지가 조성되는 초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회의도 하면서 자주 모일 기회가 생겼다.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따스한 온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정훈 씨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정훈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활기가 넘치고, 주민들이 아파트 일에 관심이 많고, 협조도 잘 되는 곳이라서 회장으로서 어려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훈 씨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분주하다.

“삼평동은 이제 막 시작하는 동네잖아요.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동네 사는 보람이 있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네가 바로 삼평동이죠. 음, 말하자면 흰 도화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주민들이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돼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하는 것도 다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동네에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그러고 보면 로또만큼 좋다고, 아니 그 보다 우리 동네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허허”





# 아파트 숲에도 꽃은 핀다

홍성자 통장 이야기





# 아파트 숲에도 꽃은 핀다

홍성자 통장 이야기



겹겹이 이어진 아파트 숲 너머로 짧은 겨울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창문 마다 하나 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간이다. 하지만, 목적지는 금방이다. 이내 동네 아파트 불빛이 보일 것이다. 정겹고 따뜻한 그 불빛이....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였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성자 씨는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어서 조급증이 일었다.

“엄마는 도대체....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서울로 가니 기름값이 도대체 얼마야. 엄마는 몸만 이사 오고 아직도 마음은 그 동네에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랬던 때도 있었지. 새로 이사 온 동네가,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새 아파트가 도무지 적응이 안 돼서 거의 매일 서울로 도망치듯 차를 몰고 달려가던 때도 있었다. 대학생인 딸은 매일 예전 살던 동네로 출퇴근하다시피 다니는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동안은 그랬다. 그때는 정말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낯설고 불안해서 ‘집’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문득 그때가 떠오르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멀리 삼평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퇴근 시간 정체가 시작되었다. 차들이 도로를 꽉 메우고 거북이 걸음이다. 이런, 바로 눈앞에 집을 두고..... 성격이 급한 편인 성자씨는 순간 울컥했지만, 조금해지려는 마음을 살살 가다듬으며 서울부터 줄곧 틀어 놓았던 FM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였다. 신도시에서는 차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과속을 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통장 회의에서도 동네에서 과속하거나 신호위반하는 차량 단속을 잘 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얘기를 자주 했다. 조금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드라이버였던 성자 씨도 차츰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다.

경쾌한 노래가 흘러 나왔다. 랄랄랄라.. 리듬을 콧노래로 가볍게 흥얼거렸다. 천천히 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집에 도착할 것이다. 막히는 도로에서 조바심내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다. 시간을 기다리며 천천히 나아갈 뿐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집에 도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집으로 향하는 길이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길이니까. 어찌 보면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가야 하는 곳이 분명하다면 좀 막히고 늦어도 꾸준히 그 길을 가면 된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테니까.

성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천천히 가자...급할 거 없어....왜냐하면 ‘나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 더불어 살며 느끼는 이웃의 정

“어머, 통장님! 어디 다녀오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있었던 통장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던 낮익은 여자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는 우리 통 주민이었다.

“네, 회의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놀러왔다 가는 길이에요?”

“호호, 우리 동보다 이쪽동이 더 경치가 좋다가에 시찰 왔어요. 농담인 줄 아시죠? 사실은 한 달에 두 번씩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음식 만들어 먹는 모임이 있어요. 요리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친목도모도 하니깐 일석삼조잖아요. 오늘은 5층 진희네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 그녀의 손에는 소쿠리로 덮은 큰 접시가 들려 있었다.

“음...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요. 접시 안에 든 음식이 뭐예요?”

“만두예요. 호호.”

“와, 왕만두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참, 많이 있는데, 통장님 좀 드릴까요?”

“어휴, 관찮아요.... 될...”

“몇 개 드릴게요. 음식은 나눠 먹어야 더 맛있다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횡재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갓 찌낸 만두는 이웃의 정처럼 보드랍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맛있었다.

온통 아파트라 삭막하기만 할 것 같지만, 성자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만남도 활발하다. 신도시가 조성된 지 고작 3년 남짓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서로 데면데면하고 모르는 척 지낼 것 같지만, 이웃사이에 정이 넘쳐흐른다.

성자 씨는 스스로 복이 많은 팔자라고 생각한다.

돈복보다는 인복, 즉 사람 복이 많다. 전에 살던 송파동에서도, 2년째 살고 있는 삼평동에서도 성자 씨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난다. 워낙에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는 성격이고, 무엇이든 퍼주기를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따로 사람들을 사귀려고 노력을 해 본 적도 별로 없다.

예전 살던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다. 송파동에 살았는데, 신혼 시절부터 이사 오기 전까지 죽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동네라 이웃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까지도 거의 알만한 사이들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낸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다보니 언제부터 친했는지 기억도 할 수 없는 이웃들이었다. 마치 형제나 가족들처럼 말이다.

성자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다. 그냥 살다 보면 옆집에 사니까, 한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이유로, 공기를 호흡하듯 다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게 되는 줄 알았다.

삼평동으로 이사를 와서야 성자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다.

## 너무나 쓸쓸한 아파트 숲에 갇히다

‘뛰어.... 내리면.... 어떨까.....?’

성자 씨는 의자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서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를 봐도 부연 회색 콘크리트뿐이다. 아파트...아파트... 그리고 또 아파트.... 지긋지긋하다. 숨이 막힐 것 같다. 누군가 자신을 빠져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둔 것만 같았다. 온 몸을 ,심장을 옥죄어 오는 불안한 느낌.....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 새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도 있었다. 순간 흥칫 놀라서 제 정신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삼평동으로 이사 오고 3개월 쯤 지났을까. 성자 씨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로에 갇혀 버린 것처럼 성자 씨는 아파트라는 빠져 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려버린 것 같았다.

온 몸에 힘이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서, 남편과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밤이 찾아온다.

성자 씨는 밤이 두려웠다. 어두워지면 망상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릴 것 만 같았다.

여기는 아무도 없다. 나를 붙잡아 줄 이웃도, 친구도 옆에 없다. 문을 열고 나가면 온통 모르는 세상, 낯선 사람들뿐이다.

우울증이었다. 가족들한테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살아 보는 아파트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더구나 삼평동이 어떤 동네인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판교지역이 아닌가. 성자 씨도 판교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다.

서너 번 떨어지고 나서 겨우 당첨이 되었을 때, 송파동 이웃들이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그들도 한번쯤은 판교에 분양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

성자씨도 처음에는 기뻐했다. 그런데 점점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송파동을 떠나기가 싫었다. 이 친근한 이웃들, 십여 년을 하루 같이 마음 부비며 살아 온 친구이며 가족인 이 이웃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갔다.

생전 처음 살게 된 고층 아파트도 부담스러웠다. 간간이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웬지 답답하게 느껴졌었다. 가끔 놀러 가니까 낮설어서 그런 것이려니 했다. 한 달 정도면 아파트에 적응이 될 거라고 여겼다. 무엇보다 아파트는 편리하고 세련된 주거 시설이다.

내가 왜 이러지. 아냐, 별 게 아냐. 그냥 섭섭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 온 이웃이야. 그런 이들과 헤어지려하니 내가 마음이 섭섭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성자 씨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다. 새 동네로 이사 가서 적응하면 불안한 마음은 당연히 사라지려니 싶었다.

아파트는 쉽게 편안해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2층, 3층 높이에 빌라와 19층 아파트는 비교하기 힘든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근처 공원이며 탄천변까지 산책을 다니기도 했다. 혼자 돌아다니는 건 금세 시들해졌다. 성자 씨는 이제까지 늘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무얼 하

는 게 너무 낯설었다. 재미가 없었다. 결국 아침 산책을 띄엄띄엄 다니다가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다. 누워있는 게 지치면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무렵이 되어야, 겨우 부스스 일어나서 집에 돌아올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밥도 지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성자 씨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가족과 타인 앞에서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우울을 가면으로 감추고 멀쩡한 척을 했다.

성자 씨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만일 성자 씨가 스스로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 장거리 연애

처음 남편과 만난 곳은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이었다.

첫 만남이었지만 성자 씨는 금새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성자 씨를 기다리며 문가에 비스듬히 기대서 있는데 사진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 편지와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터라 막상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쾌활한 성자 씨 덕분에 분위기는 금새 화기애애해졌다.

남편은 서울에서, 성자 씨는 여주에 있었다. 둘 다 전화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잘못 걸린 전화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목소리가 근사한 남자였다. 얼굴을 보기 전에 전화로 먼저 사귀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첫눈에 반할 일은 없었지만, 첫 통화에 그의 목소리가 마음에 남았다.

잘못 걸린 전화를 시작으로 해서 주소를 교환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장난 반 호기심 반이었다. 진지하게 교제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래 전, 그이와 첫 편지는 어떻게 시작했더라. 아마도 수줍은 인사 뒤에 출근길에 길에 피어있던 코스모스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남편은 이내 답장을 보냈다. 목소리만큼이나 단정한 글씨체였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전화와 편지로 달콤한 연애를 했다. 서로 생각이 비슷했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잔뜩 멍 부린 포즈로 찍은 사진을 보냈다. 사진을 통해서 처음 본 남편의 인상은 전화 통화를 할 때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두 번 정도 편지가 오간 후에야 성자 씨는 사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남편은 그때 얘기를 이렇게 했다.

“여자가 내 사진을 보냈으면, 좋다든지 싫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서 불안하더라구.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궁금하기는 한데...체면이 있으니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속만 바싹바싹 타들어갔지.”

마장동 터미널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서울과 여주를 오가며 연애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하면서 성자씨는 다니던 전화국에 사직서를 냈다. 아쉬웠지만 서울로 전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신혼집은 송파였다. 지금은 아파트가 많지만, 그 당시 송파는 옛 시골 동네의 정취가 남아있는 동네였다.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모여 있었고, 재래시장도 가까이에 있었다.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서민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성자 씨는 송파가 한강도 가깝고 공원도 많아서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좋았다. 직장을 다니다가 집안에서 살림만 하려니까 영 쯤이 썩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른 일을 할 엄두가 안 났다. 두 아이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 5-6년 사이에 간극을 채워 준 것은 바로 이웃들의 정이었다.

성자 씨가 살던 곳은 작은 빌라였다. 아침만 먹고 나면 동네 주민들이 빌라 앞에 놓여 있는 평상에 모여 들었다. 바느질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부업으로 하는 일감을 들고 오기도 했다. 매일 빌라 앞 평상에서는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점심시간이 되면 누구는 밥솥을 들고 나오고 누구는 냉장고에 반찬을 들고 나와서 솥 쪄 놓고 밥을 비벼서 다함께 손갈 푹푹 쪄으며 나누어 먹었다. 이웃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서로 끌어안고 울어 줄줄 알았다.

## 통장은 나의 힘, 봉사는 나의 삶

서민들에게 관교는 꿈의 도시였다. ‘관교에 아파트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다. 성자 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대를 안고 삼평동으로 들어왔다.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된 딸들은 무척 흡족해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다시 송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엄마의 우울증을 밝힐 수도 없었다.

성자 씨는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혼자 있는 게 싫고 밤이 무서워졌다. 창밖만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룩룩 흘렸다. 성자 씨의 우울증이 극에 달할 즈음에 우연히 ‘통장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명민한 직감적으로 ‘이거다!’고 느꼈다.

성자 씨는 통장이 되었다. 그리고 길고 암울했던 우울증의 늪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뿐인가. 성자 씨는 본래의 활발한 성격을 되찾으면서 재미있고 배포 큰 ‘언니’로 동네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지나고 나니까 무서운 걸 알겠어요. 그 당시 나를 그 무서운 늪에서 건져준 것이 두 가지인데 통장 일하고, 봉사활동이에요. 그 두가지 일이 아니었으면, 언제 훌쩍 뛰어 내렸을 지도 모르지 뭐”

성자 씨는 전에 살던 동네 송파에서 동네 지킴이, 독거 노인 활동 보조, 청소년 선도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지금도 한달에 두 세 번은 서울로 나가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삼평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장들이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찾아서 하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성자 씨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다. 삭막한 아파트 사이, 아스팔트 사이에 작은 틈에서 풀꽃이 자라고, 민들레가 솟아나는 곳을 보면 무척 신기하다. 그런데, 먼저 손 내밀어 친구가 되어 주고, 함께 가자고, 더불어 살자고 얘기해주는 이웃들이 사실 성자 씨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긴다.

### 삼평동 옹기 가마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판교인터체인지와 독점마을의 뒤편 구릉 일대에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수십 명의 일꾼들이 옹기를 굽던 곳으로 '동이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뚜렷한 가마터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옹기 파편 등이 확인되었다.

성남시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문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향후 국토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산업 시설 및 택지 개발, 사회 간접 시설 확충 등 개발 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1년 토지박물관에서 수행한 지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채집유물은 조선 후기 옹기류의 도자기와 자기 조각 등이다.

옹기가마터가 있던 삼평동 산2-12번지 일대는 판교신도시로 개발되면서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정들면 고향이지

지강진 통장 이야기





# 정들면 고향이지

지강진 통장 이야기



강진 씨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났다. 1964년생이니 올해로 마흔 여덟이다. 고등학생 때 가족들이 모두 서울로 이사를 했기에 고향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이제는 아산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분당에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길어졌다.

부모님들은 가끔은 떠나 온 아산을 그리워하셨다.

“그거 생각나니? 왜 우리 집 앞에 커다란 회화나무가 있었잖아. 그 나무가 아직도 있을까 모르겠네, 되게 오래 된 나무인데 그새 죽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살던 동네도 많이 변했겠지?”

“어휴, 그럼 엄마... 그때가 언제유.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강진 씨는 사실 그런 얘기가 예전에는 별로 실감나지 않았다. 고향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떤가.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 바쁜 도시민들에게 고향이란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좀 더 들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마흔이 넘을 즈음인가. 늘 바쁘고, 활기차고,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강진 씨에게

도 마음에 잔잔하게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유없이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있는 게 좋았다.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면 혼자 차를 몰고 훌쩍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다. 무심하게 잊고 지냈던 옛날 고향 친구들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림고 보고 싶기도 했고, 첫 미팅 때 만났던 그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당황하기도 했다.

“오춘기지 뭐”

친하게 지내는 동네 언니는 그런 강진 씨를 보면서 깔깔 웃었다. 사춘기를 지나서 오춘기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 번 마음에 훈풍이 불어오는 때라고 한다.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 강진 씨는 마음이 살랑거리는 게 나쁘지는 않았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끔은 고향을 떠올리기도 했다. 훌쩍 큰 큰 딸이 어느 새 강진 씨가 고향을 떠나 올 즈음에 나이가 되었다. 강진 씨는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났지만, 아이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갈 것이다. 강진 씨가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아이는 외지에 가서 살더라도 돌아 올 고향이 있는 것이다.

강진 씨는 나이가 들어서야 고향이란... 그리워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강진 씨는 분당에서 살았던 세월이 새삼 고마웠다. 이제 분당은 강진 씨에게도 정든 고향이 된 듯하다.

‘고향 ...뭐 별건가... 정들면 고향이지.....’ 이제는 그런 말이 절실해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강진 씨는 새삼스럽게 느낀다.

## 분당도 처음부터 분당은 아니었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그만큼 분당은 바깥에서 보기에 도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녹지도 풍부하고, 생활 여건도 좋은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분당이라고 처음부터 분당은 아니었다.



강진 씨가 처음 분당에 왔을 때, 이 동네는 온통 진흙길이었다.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 버스를 타고 동네 입구에서 내리면 아파트 단지까지 질척거리는 진흙 뺨에 폭폭 빠지면서 걸어가야 했다.

분당이 시범단지로 지정 되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막 정비가 시작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사람 사는 동네 보다 시끄럽게 중장비가 오가면서 공사를 하는 지역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시골이 있나 싶었지요. 나는 그때 서울 연희동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언니랑 가족들이 분당에서 살았어요. 나는 직장 다니는 틈틈이 언니 일을 도와주러 왔었지. 그때 분당의 첫 인상은 되게 시끄럽다는 거였어요. 그냥 시골 마을인데, 아파트 짓는다고 다 파헤쳐 놓고 여기저기서 독딱거리고, 중장비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또 한 쪽으로는 아직 시골스러움이 남아 있어서, 난 그게 좋았지. 운치가 있었어요. 울동공원도 지금은 아주 세련됐는데, 그 때는 그냥 시골 저수지 같았어. 원두막도 있고. 그래서 언니 때문에 드나들다가 서서히 정을 붙이게 되었죠.”

강진 씨는 아무 것도 없는 땅 위에 아파트 들이 들어서고 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을 오랜 세월 지켜봤다. 분당 뿐만이 아니다. 삼평동도 그렇다. 삼평동이 판교 IC 근처에 그냥 너른 들판이었을 때를 강진 씨는 기억한다. 그 들판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업 단지가 들어서고, 지하철 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마을이 생기리라고는 그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 분당 토박이

30살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을 했다. 신혼살림을 친정 식구들이 가까이 있는 분당에서 시작했고, 3년 뒤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2년 터울로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세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친구들은 아이들 셋이나 낳은 ‘용감한 여자’라고

우스개소리를 한다. 강진 씨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결혼만 일찍 했어도 넷은 거뜬이 낳아서 길렀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웬만큼 커서 이제 손이 덜 가겠단 싶을 무렵에 강진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분당에서 아이들 학습지 지국을 하고 있던 이웃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강진 씨한테 운영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그렇잖아도 적당한 일거리를 찾고 있던 참인데, 학습지 지국은 아이들 공부도 봐주면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선뜻 제안을 받아 들였다. 강진 씨는 그 일을 삼평동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8년 동안 했다.

학습지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만, 학습지 지국을 운영하는 것은 그 연령의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8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강진 씨는 분당의 마당발이 되어 버렸다. 강진 씨처럼 오래 산 주민들도 적을뿐더러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히 발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어려서 발레학원에 다닐 때 친해진 가족들하고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매년 여행도 함께 다닌다.

“분당은 모르는 가게가 없고 모르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분당에 가면 거의 5분에 한번 씩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정도니까요. 분당에 아파트가 많아서 삭막하기만 할 것 같지만, 내가 워낙 오래살아서 그런가..... 난 그냥 인심 좋은 시골 동네처럼 푸근하게 느껴져요. 삼평동에 이사 올 때도 그랬어요. 삼평동이 지금은 멋없이 아파트만 늘어서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 하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거 같아요. 앞으로 그걸 지켜 볼 일이 흥미진진하지요.”

강진 씨가 삼평동에 당첨될 수 있었던 데는 세 아이의 힘이 컸다. 계속 분양신청에서 떨어져서 속상했는데, 다자녀 혜택을 받은 덕에 입주할 수 있었다.

학습지 지국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분당에 있을 때는 간간이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삼평동 주민센터에도 자원봉사 신청을 했다. 자원봉사는 주로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품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 삼평동 주민센터가 규모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당에서 자원봉사할 때는 따로 일이 있었으니까, 자원봉사 외에 하지는 못했다. 그때 통장들을 여럿 알게 되었는데, 옆에서 지켜 본 통장은 철저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삼평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지원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선뜻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작용했다. 해 볼만 할 것 같았다.

## 삼평동은 진화하는 중

강진 씨의 아침은 새벽 6시에 시작된다. 먼저 고등학생인 큰 아이를 등교시키고, 차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막내까지 등교 시키고 나면 시간은 8시. 서둘러 차비를 하고 주민센터 앞으로 나간다. 삼평동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매일 오전8시부터 9시30분 까지 환경 지킴이들은 삼평동 일대를 죽 돌아보면서, 쓰레기도 줍고, 불법 광고물들도 제거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만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본다.

주민 환경지킴이는 자원을 받아서 지난 해부터 시작했다.

“환경지킴이를 하다 보면 삼평동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요. 몇 달 전에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요.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거나, 나무가 더 자랐거나, 꽃이 피었거나 그런거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보람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더 잘 알게 되니까요.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평동은 아직도 매일 매일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평동에 사는 게 참 흥미진진하죠. 지금 삼평동은 사람으로 치면 겨우 유아기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무럭무럭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예요.”

강진 씨에게 분당은 제2의 고향이다. 분당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했듯이, 새로운 마을 삼평동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갈 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생각이다.

## 삼거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관할의 옛 지명.

옛날 주막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는 삼평동 279번지와 283번지 일대의 마을이다. 동쪽의 보평[보들마을]과 함께 지금의 삼평동을 구성하였으며, 삼가리(三街里) · 고운골이라 고도 불렸다. 동서로 각각 대왕판교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사통팔달의 요충지가 되었다.

예전에 서거호남으로 가는 길과 광주 방면으로 하여 강원이나 경북 방면으로 이어지는 삼각 교차점에 위치하여 길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므로 삼거리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보평리와 병합할 때 한 글자씩 취해 삼평리로 바뀌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승격과 동시에 삼평동으로 승격하였고, 1991년 9월 분당구 관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서쪽 지역으로 화랑공원, 판교세븐번처밸리 등이 조성되어 있다. 동쪽에 경부고속도로 판교인터체인지가 인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 삼평동 선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었던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돌.

삼평동 선돌은 성남시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문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향후 국토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 수립하고, 각종 산업 시설, 택지 개발, 사회 간접 시설 확충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1년 토지박물관에서 수행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삼평동 선돌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성내미마을 안쪽 도로변 경작지에 남향하여 서 있었다. 주위로는 해발 100~150여m 내외의 야트막한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선돌이 있는 경작지는 배후의 산지로부터 완만하게 뻗어 내려온 가지능선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인근의 삼평동 야산 기슭에서 민무늬 토기 조각 등이 발견된 예가 있어 청동기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20여 년 전 현재 선돌이 있는 밭 가장자리의 실개천에 걸쳐놓고 다리로 썼다가 밭주인이 거둬서 화를 입어 무당을 불러 점을 쳤더니 이 돌을 원래 상태로 세우라 하여 다시 세워 두었다고 한다. 2001년까지 놓여있던 장소에 하수구가 생기면서 밭의 반대편 가장자리로 옮겨놓았다.

앞뒷면이 편평한 판석 형태이며 윗부분이 반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재질은 육안으로 볼 때 화강편마암으로 여겨지며, 규모는 높이 113cm, 폭 70cm, 두께 18cm이었다. 이러한 판석 형태의 선돌은 충북 보은 지산리와 진천 월산리 등지에서 보고된 예가 있다.

선돌이 위치하던 삼평동 성내미마을이 판교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삼평동 선돌은 없어졌다.



# 우리가 만드는 마을 이야기

주민자치 위원회 조희태 위원장







# 우리가 만드는 마을 이야기

주민자치 위원회 조희태 위원장



희태 씨는 언제나 바쁘다. 맡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이 일 들 중 대부분은 성남 지역 사회와 관련 된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희태 씨가 스스로 신나서 하는 일들이다. 그는 1997년부터 성남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남 지역 주민들과 지역을 만들어 가고, 보다 나은 현실을 가꾸어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희태 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곳이다.

성남시 은행동에 살다가 삼평동으로 이사 와서는 아파트 단지 회장을 맡았다. 먼저 나서서 할 생각은 없었지만, 마을을 위해서 그의 헌신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외면하는 성격은 아니다.

‘삼평동에 처음 이사 와서 보니까 온통 아파트 단지밖에 없었지요. 성남 구 시가지는 오래 그 동네에 서 살았던 토박이들이 많으니까 마을의 문화나 정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 근데 삼평동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부터 맘을 맞춰서 우리 마을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었지. 그래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라고 했을 때도 거절을 못하겠더라구요.’

## 가난과 잦은 이사

희태 씨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으로 온 것은 1992년이었다. 7살 때 고향을 떠난 이후로 희태 씨 가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사를 다녔다. 거의 전국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다.

희태 씨의 고향은 전라남도 곡성이다. 할아버지 대만 하더라도 곡성 일대에서 내로라하는 부농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거듭 실패하면서 가산을 탕진하지 않았더라면,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워낙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살아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희태 씨는 황금빛으로 빛나던 가을 들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베풀기를 하던 날의 떠들썩함과 풍요를 어렵쑴이 기억하고 있다. 어린 마음에 동네가 왠지 지겨운 게 신이 나서 동무들과 함께 어른들 틈을 마구 휘젓고 다니다 혼나기도 했다.

곡성을 떠나서 처음 정착한 곳은 강원도 사북이었다. 일년 남짓 있다가 인근에 동원탄광이있던 갈매로, 영동으로, 다시 사북을 오가며 한 동안은 강원도에서 살았다. 잘은 모르지, 아마 그때 아버지가 탄광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아버지는 사업이 여의치 않았는지, 바깥으로 돌아다닐 일이 많았는지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다. 어머니의 한숨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뭔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탄광 지대는 암울했다.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검은 색이었다. 빨래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헹구어도 검은 물이 빠지지를 않았다.

“어디든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러려니 했지요. 아버지가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린 마음에도 아,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데 하는 건 알 수 있었지. 그때는 워낙 어렸으니까 가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 잘 몰았어요. 다만, 다른 집은 아버지들이 다 탄광에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만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애들한테 좀 소외감을 느꼈지. 한 곳에 눌러 살아야 친구도 사귀고 할 텐데...의

속해질만하니까 갈매로 이사가고, 또 판 데로 옮기고, 자꾸 그러니까 친구 사귄 틈이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지.”

## 뿌리가 없는 삶

강원도를 떠난 뒤에는 부천으로 갔다. 부천에서 한 일년이나 살았을까. 다시 우면동으로 이사를 했다. 우면동은 지금은 교육방송국이나 근처 예술의 전당, 녹지대가 풍부해서 아파트 가격도 비싼 고급 전원 마을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시골마을이었다. 동네라고 해봤자 허허벌판에 웅기종기 집 몇 채 서 있는 게 다였다.

막 강남 개발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농사를 짓던 이웃들 중에서 나중에 땅을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도 땅이 있으면 좋을 텐데...그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지 않아도 될텐데...’ 어린 희태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뿌리 없는 흔들리는 삶 같았다. 이제 그만 정착하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이 고단하기만 했다.

동네는 대부분 허름한 농가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했다. 논도 있었고, 뽕밭도 있었다. 마을로 들어오는 흙길은 비만 오면 폭폭 빠지는 진창으로 변했다.

집이 너무 가난해져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희태 씨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 년을 쉬면서 집안일을 도왔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땀감을 해 오는 건 희태 씨 담당이었고, 형은 동네의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탬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간신히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는 우면동에 있는 학교를 마쳤는데,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었다. 2시간에 한번씩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장충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 버스를 놓치면 1시간을 걸어서 지금의 강남 구청 근처까

지 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강남구청 근처에 가면 30분 마다 버스가 다녔다. 강남구청은 막 철근 뼈대가 올라가면서 한창 공사 중이었다. 신사동도, 대치동도, 압구정도 그저 허허벌판이었다. 가게도 없고, 사람도 뜸한 거리에 버스 정류장만 있었다.

“왜 장충동까지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아마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은 족히 걸리던 거리였어요. 고등학교 때 양재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우면동으로 이사 오고 그랬지. 정말 이사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하면...뿌리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정착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

## 풀뿌리의 힘

집을 갖는다는 것. 누구는 집을 부를 과시하거나, 재산을 모으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희태 씨에게 집은 뿌리와 같았다. 그렇지만, 정작 희태 씨도 1992년에 은행동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참 많이도 이사를 다녔다.

1983년에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처음 결혼해서는 신사동에 살다가 면목동으로, 과천으로 갔다가 부천, 다시 은행동으로 왔다.

은행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야 비로소 정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하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청약저축을 붓는 빠듯한 생활이지만, 희태 씨는 비로소 성남에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서 기뻐다.

“공원부지 형질 변경이 웬말이나! 성남 시장은 각성하라!각성하라!”

“공원 대신 아파트! 조카에게 특혜주는 사기 행정 때려쳐라!”

90년 말에 은행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희태 씨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앞이었다. 시영아파트였는데, 시에서 공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아파트 지역에 편입을 시켜버렸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었다.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변경된다면 몰라도 공원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더구나 이 불법 형질 변경이 당시 시장이 조카였던 관련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네는 별집 쭈신듯이 시끄러웠다. 주민들이 일제히 시장을 규탄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일어섰다.

연일 집회가 열렸다. 대부분 부녀회 주민들하고 동네 자영업자들로 2-30명 내외로 모였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희태 씨는 시위니 집회니 하는 일들은 자신하고 거리가 먼 일이라고 여겼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시끄러운 일에는 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 건 굳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나서서 하고 싶은 이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멀리서 구경만 했지. 그래도 우리 동네일인데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잘못된 일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요. 불법을 한 것은 시장이고 주민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누가 봐도 주민들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멀찍이서 구경만 했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한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꿈쩍도 안하고 오히려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 더 기가 막힌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희태 씨는 처음에는 집회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다가 결국 대책위원장까지 맡게 되었다. 공무원들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었다. 시 공무원들이 대놓고 구시가지 주민들과 신시가 지 주민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

‘신시가지에서 세금을 내서 이 동네도 먹여 살리는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여긴 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라 좀 이러다 말거다. 시위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냐’

희태 씨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했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떳떳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쪽이 조롱당하는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희태 씨는 이를 악 물고 사건의 중심으로 뛰어 들었다. 그들이 무시하는 은행동 소시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냐! 풀뿌리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지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심정으로 집회를 조직하고, 언론에 알리고,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탄원서를 냈다. 생업은

뒷전으로 물리고 맹렬하게 활동했다. 처음에는 은행동 주민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방송 취재도 나올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다.

집회에 팽과리를 앞세운 풍물패도 등장 시켰다. 주민들을 상대로 사태의 핵심을 꾸준히 알려나가면서 집회 참여 인원이 거의 천명까지 늘어났다.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으니까.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시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결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 정다운 삼평동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희태 씨도 당침이 되어서 삼평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뻐다. 삼평동 아파트들은 투기나 재산 증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 희태 씨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희태 씨는 오래 살았던 은행동 만큼이나 삼평동에 새록새록 정이 들었다.

희태 씨가 아파트 단지 회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우리 동네 내가 청소하기’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하는데 추운 겨울에도 거의 백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아침 일찍 나서서 아파트 단지 청소를 함께 한다. 여느 아파트 단지라면 쉽지 않은 일일 터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덜컥 삼평동 초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되었다. 거절할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하기는 했지만, 희태 씨는 이 빛도 영광도 없는 자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희태 씨가 은행동 주민들과 함께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동네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내 가족들이 살아가고, 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라는 동네를 잘 가꾸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기도 했다. 희태 씨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외국으로, 객지로 나갔지만, 삼평동 주민

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알게 해주고 싶다.

“정다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라고 아파트 단지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얼마든지 시골스러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골에 가면 담장 너머로 집들이 다 보이잖아요. 담장 안에서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담장 안과 밖이 수시로 만나잖아요. 아파트 단지도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랑방같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함께 내일을 만드는 주민자치

다른 지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10년 가까이 되는 곳이 태반인데, 삼평동은 이제 겨우 첫 해가 되었다.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희태 씨는 생각이 많다.

“시청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다보니 삼평동이 있는 지도 모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시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동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삼평동 주민들이 단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것도 있지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장이 서지 않으면 모이지를 앉는다. 서로 이웃인지도 모르고 무심하게 살아가기 일쑤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행사를 많이 열었다.

분당구 한마음 축제에 처음 참여했다. 노래자랑에서 삼평동 주민들이 1등을 했고, 실버댄스도 동상을 탔다. 어느 동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응원을 떠들썩하게 하는 바람에 ‘삼평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걸 아주 더듬썩하게 알렸다.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 분당구 체육대회, 미니콘서트 등 삼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 치러보는 행사들이었다. 행사를 치러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동보다 두 배 세 배나 일해야 하지만, 모두들 즐겁게 받아들였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분위기를 띄우려는 거예요. 우선 즐거운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 자주 만나고 어

울리고 하면 동네 문화가 생기는 거죠. 행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형식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려면 어떤가 싶어요. 참여하는 주민들이 즐겁게 놀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야.... 축제라고 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차차 실질적으로 우리 동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마을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한술 밥에 배 부르려는 생각은 안 해요. 천천히 가야죠.”

물론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참여를 독려한 측면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도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던 점은 정말 뿌듯한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 삼평동 테크노밸리

삼평동 테크노밸리는 벤처 및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의 요람이며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테크노밸리에는 벤처기업 1천 개를 포함해 4천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수도권의 최대 기업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대표 업종은 국내 유명 벤처기업들이다. 이들이 입주를 모두 마치면 국내 최대 · 최고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안철수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총면적 3만6천300㎡ 규모의 지상 10층 사옥을 마련, 이곳에 문을 열었다. 한글과 컴퓨터도 지난 1월 입주를 마쳤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삼성테크윈, SK케미칼, 미래에셋투자, 판교벤처밸리, 코리아바이오파크 등 국내외 대표 IT · BT기업과 연구소, 금융기관 등 14개 사업자가 건물을 완공했다. 입주기업은 130여 개에 이른다. 또한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 네오위즈,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16개 사업자도 건물을 짓고 있다.

2013년 3월까지 지상 7~10층의 글로벌R&D센터와 공공지원센터, 산 · 학 · 연R&D센터 등 입주기업 지원 건물이 건립된다. 시는 2013년 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삼평동 이야기북 1  
**‘봇들 사랑방 이야기’**

